

세계 1000대기업 화학부문 급부상

ExxonMobil 시가총액 2713억달러로 3위 ... 석유·제약·화장품 주류

2002년 세계 1000대기업에 석유를 비롯해 제약·화장품기업이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Business Week에 따르면, 23개국(한국 제외)을 대상으로 한 세계 1000대 기업 순위에서 코카콜라, 네슬레, 질레트를 비롯한 일반 소비재 공급기업과 로레알, 시세이도를 비롯한 화장품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.

또 상위 25개 중 19개가 미국기업으로 조사됐다.

세계 최대기업은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제너럴일렉트릭(GE)이 차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그 뒤를 이었다. Johnson & Johnson(9위)과 인텔(10위)이 새롭게 10대기업에 진입했으며 2001년 각각 7위와 10위를 기록했던 AOL타임워너(36위)와 IBM(13위)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.

세계증시의 거인(2002) (단위: 10억달러)

순 위		회사명	시가총액
2002	2001		
1	1	GE	309.4
2	2	MS	275.7
3	3	ExxonMobil	271.3
4	6	Wall Mart	240.9
5	5	City Group	223.0
6	4	Pfizer	216.7
7	8	Royal Deutch/ Shell	194.5
8	9	BP	192.1
9	21	Johnson & Johnson	186.9
10	13	Intel	184.6

+ 2002년 5월말 현재 주식 시가총액 기준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07/ 08 >